

대부도의 까치섬 이야기

1p. 대부도에는 나무 하나 없이 찔레꽃 덩굴만 남아있는 작은 섬이 하나있어요.

2p. 사실 이곳은 원래 다양한 나무가 있고, 찔레꽃이 만발한 유월에는 벌과 나비가 넘쳐나는 경관이 좋은 섬이었습니다. 이곳에 까치가족이 살았어요.

3p. 어느 무더운 여름날 농사에 지친 농부가 일을하다 소나무 밑에서 잠깐 낮잠을 자기로 했어요.

4p. 그런데 커다란 구렁이가 그 농부를 휘감아 숲속으로 끌고 가는게 아니겠어요? 농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5p.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까치 가족이 구렁이가 외출한 틈을 타 구렁이 몰래 기절한 농부를 깨우고 머루, 다래등 먹을 것을 주었어요.

6p. 농부는 기운을 차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7p. 그 후 농부는 틈만 나면 까치섬으로 건너가 까치가 먹을 곡식을 가져다 주어 은혜를 갚았어요.

8p. 까치가 살기 좋다는 소문이 나자 이웃마을, 이웃 섬에서 많은 까치들이 이사왔어요.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작은 섬을 까치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까치섬의 유래랍니다.